

한국건축문화대상 이대로 좋은가?

Reflections on the Korea Architecture Award

우수한 건축물이 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 건축의 정통성과 현대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해 이 시대 건축문화의 표상으로 삼아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1992년에 제정돼 올해로 8회째 시행되고 있는 한국건축문화대상 -

그러나 최근 건축계내에서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당초 상의 제정취지와 달리 건축상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건축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임' 등과 같은 건축계 일각에서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이 민간이 아닌 관과 언론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출품거부 등 단합된 행동으로 건축사가 건축문화의 실질적 주역임을 강력히 천명하지는 문건을 배포해 적지않은 파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우리 협회 또한 이같은 건축계의 정서를 반영해 그동안 서울경제신문사, 건설교통부와 공동주최해 온 동행사에 올해부터 불참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당국에 행사의 개선시행을 건의하였다.

대다수 건축사 회원들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채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향후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진정한 시상제도로 거듭나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건축문화창달의 주역인 민간단체가 그 시행주체가 되어야 함은 물론 건설교통부와 서울경제신문사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격려하는 진정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편 서울경제신문사 등 현 주최측은 건축계의 이같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내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건축계 전체의 행사인 만큼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건축사협회의 지속적인 참여를 바란다"는 요지의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계 인사들을 초빙,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긴급 진단하고 아울러 건축상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관해 의견을 듣는 특별좌담을 마련하였다. <편집자주>

일 시 / 1999. 11. 15(월). 14:00 ~

장 소 / 대한건축사협회 회의실

참석자 / 강석원 (건축사사무소 그룹가 대표)

김광문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김석철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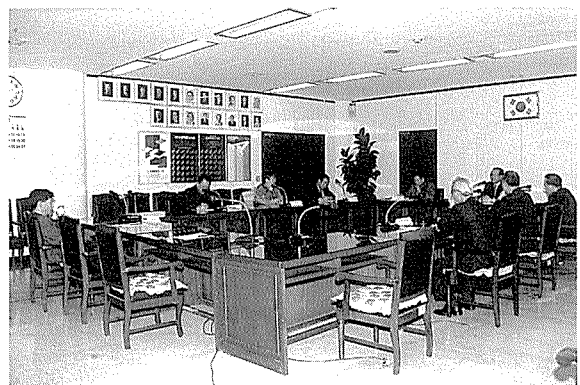
김인철 (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대표)

박서홍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안길원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병담 (현대산업개발(주) 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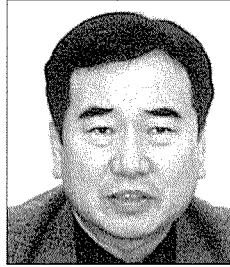
최영집 (사회/탐건축연구소 대표)



좌담광경

최영집 건축상 문제로 인해 올해처럼 어

수선했던 적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세기를 맞아 건축상이 거듭나기 위한 진통과정이자 건축상을 보다 권위있고 자랑스럽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건축계의 관심과 애정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좌담은 국내 건축상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서 특히 올해 논란이 됐던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란 문제도 함께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일반적으로 건축상이란 것이 어떤 목적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김석철 선생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석철 오늘 논의될 사항이 건축상 일반에 대해서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건축문화대상까지 한 데 묶어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강석원 사회자께서 오늘 좌담의 목적이나 전후사정을 먼저 간략히 말씀해 주신 후 논의에 들어가는게 좋지 않을까요?

최영집 아시겠지만 현재 건축작품상의 성격을 지닌 시상제도로는 한국건축가협회의 대한민국건축대전이 있고, 서울시건축상과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우수 건축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건축시상제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환경문화상에도 건축부문이 있습니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기성 건축사의 작품과 신인 학생의 계획작품을 심사해 시상하는 한국건축전을 지난 1971년부터 개최해 오다가 1994년부터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와 함께 한국건축문화대상으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출범당시의 취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윤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신문사가 공동주최를 하다보니 각종 부작용도 생기고 상의 권위에 누를 끼칠 만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점차 상을 좌지우지하려는 입김들이 커지게 되고 건설교통부 또한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주도하려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한국건축문화대상 심사를 맡으셨던 강석원 선생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문제 발단 과정을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신 후 그 이후의 진행사항을 계속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원 새로운 상을 제정한다든가 개선시

키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에서 사회자께 건축상에 대한 사전설명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작년에 심사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셨던 김광문 교수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만 작년 심사위원중에는 정신과 의사라던가, 언론사 임원 같은 비전문가가 몇 분 계셨습니다. 심사위원 구성부터가 문제가 있었거니와 공식적으로 심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모 건설회사로부터 탈락사유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날라와 심사위원들을 어처구니 없게 했는가하면 현장심사를 위해 서울을 비롯해 전국 지방을 다니는 중에 동행한 다른 모 심사위원으로부터 특정 건축물이 꼭 수상작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한 권유를 받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명칭 그대로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심사하는데 있어 수준이하의 작품이 배제되는 것은 당연한 데도 관례를 들어 특정 작품을 입상하게 하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심사가 끝나고 시상식 행사에 초대받게 되었는데 시상식 당일 신문사 측이 배포한 16면 짜리 한국건축문화대상 특집을 보았더니 심사평도 일부 심사위원의 글만 실리고 중간에 이의제기를 했던 심사자의 글은 빠져 있었던 것은 물론, 심사할 때 내용증명을 보냈었던 모 건설회사가 시공한 건축물이, 심사위원들이 선정하지도 않았는데 특별상을 받은 것으로 전면 축하광고가 실려 있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축가의 양심으로 보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돼 건축사협회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사협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더군요.

최영집 강석원 선생님만 심사에 참여하셨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심사를 맡으셨던 김광문 교수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문 예.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박서홍 단편적으로 몇몇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가지 사항을 보충설명해 드리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크게 준공건축물 부문과 계획건축물부문으로 나누어져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계획건축물부문은 학생과 신인들을 대상으로, 준공건축물부문은 최근 국내에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준공건축물부문이 건설회사, 특히 아파트 시공업체들의 경연장화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주최자의 성격에 관한 문제로

서,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를 하는 이상한 체제이다보니 현실적으로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인식하는 각각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말해 언론사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행사에 공동주최자 이상으로는 행동할 수 없는데도 어느 시점에서부터 정부표창을 끌고 들어온 것이 힘으로 작용해 주최자 이상의 입장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아파트 때문에 주거와 비주거를 구분해 심사하다 보니 주거쪽에 치우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건교부 건축과의 입장이 있는데 건축과로서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유일하게 대외 행사에 관계하고 기여하는 행사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상에 연연해 하고 미련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울경제신문사의 입장 역시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정부표창을 영업전략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전제로 하다보니 여러가지 심사와 정에서의 파행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원사의 문제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전체 행사비의 절반 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 반을 4개 후원단체와 건설교통부가 부담해 왔습니다. 후원단체는 건설교통부 산하의 4개 단체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이 주택관련분야의 단체들입니다. 그러다보니 후원단체들도 본래의 순수한 후원 개념에서 벗어나 자기 회원사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 시행위원회에서 모 후원단체를 대표해 나온 인사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원금 납부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후원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며 회의 중간에 자리를 뜬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최영집 잘 이해가 되셨을 줄로 압니다. 원래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함께 자리하지 못하신 윤승준 전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을 일전에 만나 빈 적이 있는데 그 분이 말씀하시길 초창기 자신이 심사를 맡을 당시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변질되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건축사협회에서도 작년에 발생한 문제점 때문에 올해 관련 예산을 삭감했고 결국 공동주최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자 건설교통부와 서울경제신문사는 여러차례 협회의 지속적인 참여를 요청해 왔고 협회가 불참 의지를 바꾸지 않자 결국 건설교통부와 서울경제신문사만 행사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대해 건축계 일각에서는 한국건축문화대상 뿐만 아니라 우리 건축상들이 이대로 가도 좋은가, 일단 올해는 한국건축문화대상에 불참을 했지만 이 상태로 가도록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있는가란 자성의 목소리가 뜨거웠고 건축사협회 역시 어떤 형태로든 건축상을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서두로 되돌아가서, 한국건축문화대상 문제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국내 건축상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순수하게 건축상이란 것이 어떻게 됐으면 좋을지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한 다음에 다른 문제들을 거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석철 선생께서 계속해 말씀해 주시죠.



김석철 일반적으로 건축상이라 하면 'PA

Award' 와 같이 계획을 심사해 상을 주는 경우가 있고 'AIA Award' 처럼 건축가단체에서 매년 준공된 작품을 대상으로 우수 건축물의 설계자에게 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AIA Gold Medal' 과 같이 평생의 건축적 업적을 기려 시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AIA Award' 와 같이 매년 건축가들을 대상으로한 시상제도가 대부분입니다. 건축가협회상이나 각종 지자체 건축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등 이들 상 모두를 하나하나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건축사 뿐만 아니라 시공자나 건축주에게까지 상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건축물이 설계자와 시공자, 건축주가 더불어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라고 하는데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외국에도 많은 건축상이 있지만 시공자나 건축주에게 상을 주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음악이 연주될 때 연주자에 따라 감동이 다를 수 있는데, 건축은 단 한번 연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건축사협회가 주최하면서 시공자에게 상을 주고 거꾸로 시공자들의 잔치가 되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하나 강석원 선생의 말씀처럼 심사에 문제가 있다면 심사위원직을 사퇴하든지 문제제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PA Award' 같은 경우엔 전문가들만 참석해야 하지만 준공된 작품의 경우에는 건축가만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Pritzker Award' 같은 경우에는 반이상이 건축가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거, 비주거를 구분해 꼭 주거용 건축물이 입상할 수 있게 하는 문제도 심사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작품을 내지 않았지만 심사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심사위원회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돼서 사퇴하려고 한적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심사위원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주도해 온 행사라면 건설교통부나 서울경제신문사가 빠져야지 왜 협회가 불참을 하니까?

최영집 네, 어찌보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건축을 창작하는 주역의 가치, 기여도, 그런 노력을 기리기 위해 주는 것이 건축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건축이 과연 건축사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나, 건축주가 발주를 하고 시공자가 시공을 해야만 건축물이 탄생되는 것이니까 건축사에게 상을 주면서 건축주와 시공자도 더불어 상을 주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건축가협회장상은 상금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므로 별 문제가 안되는데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수상작품이 광고처럼 곧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 부각돼 버리니까 규모가 큰 아파트나 대형 건설사에게 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상 자체가 변질되기 시작하게 아닌가 봅니다.

작품의 창의성이나 시대적 가치 등을 기리기 위해서는 좋은 건축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무래도 이병담 부사장께서 건설회사의 입장을 대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병담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점차 상업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서울경제신문사도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했겠지만 아무래도 언론사도 하나의 기업이고 보면 상에 따른 부상, 막대한 경비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후원금이나 광고수입 등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으리라 봅니다. 후원단체들도 사업하는 분들이니까 상 자체를 프로모션에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센스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쟁사회에서 상 받은 사실을 어떻게든 프로모션에 이용하려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순수성을 잃고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설계자, 설계작품의 상이 되어야 하고 부상 등 불필요한 경비를 대폭 줄인다면 비교적 좀더 순수성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발주자인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상을 주는 것도 좋은 건축물을 탄생시키는 데 있어 상호 지원과 협력이 잘되었고, 실력있는 설계자를 만나면 좋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는 긍정적 측면에서 시작된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듯합니다.

최영집 몇 년 연속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이니 하며 주택건설 업체들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아파트 부분은 주택관련 협회 등에서 독립적으로 상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응모하셨던 분도 참석해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이병담 제가 한가지만 더 첨언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설계가 잘된 프로젝트에 상을 주고 있는데, 건설회사들이 전략적인 사이트를 선택해서 만들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가 가져야 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전체적인 수준을 높여가는게 아니라 단일 프로젝트를 평균이상으로 부각시켜 마치 전체가 그런 것처럼 프로모션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최영집 시공회사들을 대상으로한 건설대상이란 시상제도가 새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 쪽에서 이런 상 저런 상 해서 상들을 새로 만드는 것은 결국 경제적 목적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김광문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광문 건축가협회상, 서울시건축상, 환경문화상 등 많은 시상제도들이 있는데 나라가 발전하고 성숙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상들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건축사협회가 행사에 불참하기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분야의 시대적 산물을 매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신인 학생들이 무엇이 좋은 건축인가를 보고 배울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유지시켜 나가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의 경우 지난해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심사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며, 비전문가의 심사참여 뿐만 아니라 시공전문가의 참여 역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 현상설계의 경우도 보면 설비전문가, 구조전문가 등이 심사에 참여하고 있는 데 그러다보니 건축전문가의 입김이 약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사는 디자인 전문가들이 주체가 돼서 진행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나 예산이 문제가 돼서 현장심사를 소홀히 하는 문제 또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공단체라면 다소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그만 두기 보다는 하나씩 개선시켜 나가면서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집 매년 정기적으로 건축작품상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건축사협회 이외에도 건축가협회, 건축학회 등이 있습니다. 김인철 선생께서도 건축상의 방향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김인철 앞에서 논의된 문제점들은 건축계 내부에서 본 것들입니다. 외부의 시각에서 본다면 상의 권위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건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한국건축문화 대상의 권위와 의미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잔치쯤으로 여기고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주최측에 경제신문사가 있어서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언론사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 경제지인가가 문제입니다. 상의 성격과 홍보가 건설중심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이 회를 거듭하는 동안 계속 확인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곳에서 뉴스를 독점하게 되었을 때 다른 일간지나 방송사 등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스컴의 생리가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을 만들어 시행하는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결코 바람직한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시상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라고 하는 삼위일체식 발상은 전근대적이고 계몽주의적인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좀더 전문적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문제는 기술의 분야로 독립시켜도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하나 상의 명칭도 다시 논의하고 싶습니다. 올해를 '건축'의 해라고 하지 않고 왜 '건축문화의 해'라고 하는가와 같은 맥락에서 '건축상'으로 충분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자재와 기술관련 전람회에서 구색 갖추기용 들러리로 동원되는 것도 짚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최영집 어쨌든 지금까지는 건축이 문화라는 측면보다는 건설이나 경제, 부동산, 산업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 문화로서의 같증이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래들어 더욱 '건축문화'라는 용어를 자주 쓰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언론과 손잡고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시작했는데 그 언론이 경제신문이다 보니 우리가 원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건축인들 중에는 국내 건축상들 가운데 한국건축문화대상이 가장 실리있는 상이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상으로 건축탐방의 기회도 주어지고, 그나마 신문에도 날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가 공동주최를 하다보니 대통령표창과 같은 정부표창이 주어져 수상자의 경우 PQ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실적이 축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길원 선생께서 그런 측면에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원 대한건축사협회는 현재 건축설계업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건축사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위상을 알리고 동시에 우수 신인·학생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건축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출품거부 파문이 일게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 경제지가 주최하는 아파트 시상제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아파트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이를 선전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계획적으로 하나의 타운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모 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아파트가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건축문화대상 역시 왜곡되어져 언론사의 영업전략에 의해 본래의 의도가 단절이 되는 등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김인철 선생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 언론의 속성상 어느 언론사가 주최한다든가 후원을 하게 되면 타 언론기관에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거기엔 언론사간의 경쟁심리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한 언론사가 먼저 정보를 쥐고 기사화하게 될 경우 뉴스로서의 가치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게되는 데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제가 몇 년전 협회 이사직을 맡아 일을 할 때도 많은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많은 경비를 부담하면서도 주최자로서의 입지가 희석되고 해서 그 때도 불참얘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결국 올해부터 불참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건축상을 다시 부활시켜 회원들의 위상도 제고시키고 또한 좋은 건축물을 디자인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건축상이 건축사, 건축인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회가 앞장서, 나아가 건축3단체가 심도있게 논의해 지속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영집 물론 아파트도 건축이므로 건축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가 꼭 상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말씀을 부탁드리기는 건축상을 통해 얻게되는 실리적인 측면에 대해 여쭙았는데 수상경력이 있으신 안선생께서도 PQ가산점 등과 같은 혜택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안길원 서울시건축상처럼 관이 주최하는 건축상에서는 여러 혜택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최영집 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주최한 건축상에서도 가산점 혜택 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길원 건설교통부와 협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영집 건축계 내에서는 가산점을 받아 좋다는 분들도 있고 일각에서는 자유경쟁시대에 그런건 없어져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후 다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가협회상이나, 건축학회상, 또한 현재 방향을 겪고 있는 건축사협회의 한국건축문화대상 등 건축계내

에 여러 시상제도들이 있는데 건축가협회장을 역임하신 강석원 선생께서 향후 건축사협회의 건축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석원 저로서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매년 이 행사를 해오다가 문제가 생겨 올해부터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두 공동주최기관을 이 행사에 빠지게 했다거나 그들이 우리를 제외시킨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교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행사를 해오다가 심호흡을 하기 위해 잠시 중단한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단추부터 다시 끼운다는 자세로 보다 혁신적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상을 만들기 위해, 건축사협회 관계자 뿐만 아니라 외부인사까지 포함한 소위원회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 경우 특히 연말이나 연초에 외국을 나가면 그 해 그 나라에서 어떤 우수 건축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점을 찾아 그 해 건축상작품집을 찾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아까 김인철선생 말씀처럼 특정 언론사의 행사에 여타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에 관심을 갖고 상을 격상시킬 수 있도록, 보다 조직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외국을 나갔을 때처럼 외국인들도 한국을 찾았을 때 올해 어떤 우수 건축물들이 상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말이죠. 즉, 그 해 문화의 척도와 홍보를 겸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영집 신문사와의 공동주최는 별 의미도 없고 실리도 없다는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 듯 한데 건축사협회만으로 단독 행사를 추진할 경우 신문사 역시 현 한국건축문화대상을 그대로 강행할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 한국건축문화대상의 명칭 사용문제가 생겨날텐데 98년도에 시행위원장을 역임하셨던 박서홍선생께서는 그 행사명칭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서홍 그보다 앞서 몇몇 분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잠시 거기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준공건축물부문과 계획건축물부문 두 개 부문에 걸쳐 시상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염두에 두고 얘기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계획건축물부문은 미래의 건축사 양성이라는 교육적 측면에서 출발했다는 점

에서 준공건축물부문과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의 명칭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서울경제신문사와 건설교통부가 92년에 이 행사를 처음 제정해 출범시켰고 협회는 94년부터 공동주최자로 참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서울경제신문사에 그 소유권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협회로서는 새로운 형태의 시상제도를 만들어 정착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또 21세기를 맞아 건축상의 순수성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2000년도부터는 건축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상제도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하나 PQ기산점 부여 문제는 행사를 어디서 하든, 누가 하든간에 배제될 것으로 봅니다.

강석원 저로서는 준공건축물부문과 계획건축물부문을 구분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지요?

최영집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학생을 포함한 신인 대상의 계획건축물부문과 기성 건축인 대상의 준공건축물부문에 구분해 응모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주로 준공건축물부문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들을 하시니까 계획건축물부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강석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자세로 건축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국내 건축상이 대개 유사한 형태와 방식을 지니고 있고 또한 모 건축상에서 상을 받은 작품이 다른 건축상에서도 상을 받는 등 차별성이 없는 만큼 건축사협회만의 차별화된 건축상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김인철 건축사협회와 건축가협회가 당장 통합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서로 성격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예로 건축가협회의 대한민국건축대전은 신인등용의 성격이 되고 건축사협회는 건축의 완성도와 작품성을 따지는 쪽으로 역할분담이 나누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획부문의 주된 출품자들이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슷한 성격의 행사들이 겹치는 것이 결코 교육적 효과를 높인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계에서도 같은 의미의 비판적 시각이 팽배해 있다고 여겨집니다. 준공부문에서도 건축가협회상과 건축문화대상이 겹칩니다. 상이 많아 기회가 열려있어서 좋다는 관점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보면 혼란일 뿐입니다. 나누어주기보다 제대로 정리해서 대중적인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격의 구분만 확실하다면 그에따른 다른 종류의

시상제도도 있을 수 있겠지요. 내부적인 논공행사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최영집___사실 건축상은 건축계의 얼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만의 일일 수가 없습니다. 건축가 협회는 오래전부터 신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건축대전을 운영하고 있고 준공부문에서는 베스트 세븐이라는 상을 주고 있으므로 건축사협회가 새로 제정하는 건축상은 건축사협회만의 컬러를 갖도록해 차별화, 전문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인철___이미 상을 받은 작품이 다른 상의 후보에서 제외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배타적 이기주의보다 폭넓은 사고의 전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학예회나 장기 자랑대회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어보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전문가집단의 전문적인 결과로서 내부적인 공감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제 손으로 올가미를 쓴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최영집___아시겠지만 건축대전은 건축가협회 뿐만이 아닌 범건축계 인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집행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의 새로운 건축상도 범건축계의 권위를 부여해서 매년 시상제도로 권위있게 발돋움 해가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강석원___예전에는 건축가협회나 건축사협회의 건축상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 지금은 각 언론사나 자치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이 급작스럽게 늘어나서 혼란스러운 감마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사협회가 새로 만드는 건축상은 상의 권위나 형식, 내용 면에서 독창성이 꼭 필요하리라 봅니다.

최영집___물론 운영의 묘에 달린 것이겠는데 어쨌든 전문가단체인 건축사협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건축사작품, 다시말해 준공부문의 시상을 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나 언론에서 시행하는 건축상과는 별개로 건축분야의 권위있는 단체가 수여하는 건축상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건축사협회의 건축상은 반드시 설득력이 있어서 건축사단체상이라는 특별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문사가 행사를 계속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어떻게 우리 건축상에서는 배제되는게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건설교통부의 주최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들을 안하셨습니다. 과연 2000년대에도 관이 건축상에 개입해 주최 또는 후원을 해야하는지, 그동안의 관행으로 봐서는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비중이 크니까 관이 개입되어

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고, 협회 임의단체 문제 등이 거론되는 등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의 지속적인 참여는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건축사들 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으신 김광문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광문___저 개인적으로는 관이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관이 개입되면, 이쪽 저쪽 눈치를 보게될테고, 순수한 뜻에서 작품성을 본다는 차원에서 PQ가산점 부여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건축사협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타 공모전이 아닌 협회의 건축상에 응모



할 수 있도록 권위있는 시상제도를 만드는데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건축문화대상 심사를 하면서 다소 준비가 부족했다고 느낀 것이, 제출된 작품자료들의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앞으로 시장개방에 따라 그런 경우가 더욱 더 많아지리라 보는데, 외국건축사와의 공동작업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괜찮은 작품들이 출품조차 되지 않은 점도 아쉬웠습니다.

또 한작품이 여기 저기서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에관한 뚜렷한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회 등을 구성해 보다 철저한 준비를 했으면 싶습니다. 매년 수상작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작품집 제작 및 보급에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최영집___지금까지의 의견을 종합하면, 건축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건축상은 존속돼야 하며 준공부문의 권위있는 에뉴얼작품상 성격이 되는게 좋겠다, 그리고 시공자나 건축주는 수상작의 주역이기 보다는 건축물이 있게한 협조자로서 예우는 하지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타 단체의 건축상과 조율해서 중복되지 않게 차별화 됐으면 좋겠다, 신문사나 관은 주최자로서 존속하는 것 보다는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이제 WTO체제하에서는 우리 건축물이 우리 건축사에 의해서만 설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건축물이 국내에 지어진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건축사에 의해 설계된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앞으로 건축사협회가 임의단체로 전환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건축계가 지금처럼 여

럿으로 나뉘어 있어야 하는지, 통합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장개방 문제라든가 건축상 문제 등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좀더 진지하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인철 상의 운영방식에도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응모해 온 작품을 가지고 심사해서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타당한 방법론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표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선정위원회가 항시 가능하여서 후보작을 체크하고 그 결과로 노미네이트된 작품들을 제출받아 수상작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최영집 예전에는 건축계내에 홍보매체가 별로 없어서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건축가협회에서는 건축잡지나 기타 매체를 통해 한해 동안 발표된 작품 가운데 우수작을 발굴해 시상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많이 해왔습니다. 본인의 참가신청이 없더라도 미리 작품을 선정해 출품을 권유하는 것도 한방법이 될 수 있겠죠.

김석철 오늘 좌담의 핵심은 아무래도 한국건축문화대상과 건축사협회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선 제생각에는 기왕에 서울경제신문사와 건축사협회, 건설교통부가 수년간 이 행사를 공동주최해 왔는데 올해는 건축사협회가 주최를 안하기 때문에 출품을 안하기로 했다고 해서 저 역시 이번엔 작품을 안냈지만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광고문제도 그렇거니와, 이 시점에서 왜 관이 계속 주도해야 하느냐고 말하면서 한편으론 건축계의 큰 행사에 정부고위층 인사가 참석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렇게 이중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기왕에 상을 만들어 지금까지 같이 해왔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든지... 제가보기에는 제대로 참여해서 심사위원회나 시행위원회를 통해 협회가 끌고나갔다면 서울경제신문이나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간섭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상이 건축계의 중요한 에뉴얼 어워드인데 무조건 과거를 부정하거나 역사를 다시 세우려 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과 달리 심사과정에서 시공자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다면 심사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심사위원 선정이나 전체적인 진행을 건축사협회에서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신들의 유일한 에뉴얼 어워드를 스스로 포기합니까? 제 생각엔 서울경제신문 보다 좀더 큰 신문

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밖에 안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홍보가 더 필요하면 한국일보에도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하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닙니까? 기왕에 해왔던 것을 깨뜨리기 보다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한다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안됐을 경우 협회가 아닌 신문사나 관이 빠지도록 해야지, 에뉴얼 어워드 자체를 저쪽에 주고 다시 만든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최영집 어쨌든 한국건축문화대상을 건축사협회 혼자 주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공동주최하기로 돼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예를들어 경제신문사나 건설교통부는 후원으로 전환하고 건축사협회가 건축상답게 주도권을 가지면서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죠. 우리가 주인이니까 그대로 주최하고 문제점들을 개선시키는게 1차적 목표일 것입니다. 상대방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계속 노력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강석원 저로서는 사회자의 말씀이 납득이 안갑니다. 명칭은 바뀌어도 그동안 건축사협회가 18회의 역사를 가지고 해 오던「한국건축전」과 통합하여 현재의 한국건축문화대상이 탄생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한국건축문화대상은 건축사협회에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과 신문사는 2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진 건축문화대상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건축사협회 주도하에 행사를 계속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건축사협회가 임의대로 탈퇴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의 탈퇴인지 아닌지 그런 어휘부터 바르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주는 누가 부리고 공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건축작품을 내는 것도 건축사이고 주관하는 것도 건축사협회입니다. 우리가 공동주최를 거부하면 거부되는 것이지, 왜 저쪽에서 마치 우리를 거부하는 것처럼 비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서홍 그것은 한국건축문화대상이라는 타이틀 때문입니다.

강석원 타이틀이 그러면... 건축사협회에는 건축사란 잡지가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홍보를 강력하게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가 됐으면 여기저기서 작품을 내라 말아라 하는 전화도 안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 것을 우리가 하는데 왜 다른 데서 딴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끌러가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명칭이 문제가 된다면 한국건축문화대상이란 명칭을 바꿔 한국건축대상 등과 같이 다른 이름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전 김교수께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관 주도의 행사들이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로 대부분 바뀌었는데 왜 건설교통부가 유독 계속 관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계의 축제를 우리 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시간을 끌어야 합니까? 건축사협회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회원들에게 충분히 알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병담 건축문화대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회사들중에서도 주택 쪽이 비교적 사업들이 많은데, 현재 몇몇 주택관련 단체에서 한국건축문화대상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 단체들의 후원참여가 없다면 서울경제신문사측도 건축문화대상에 대한 관심도가 달라지리라 봅니다. 다시말해 한국건축문화대상을 통한 광고유치가 어렵게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의 순수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건축사협회가 목적하는 에뉴얼 어워드 형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실 주택분야에 상을 주다보니까 건축의 기본에서 벗어나는 작품들이 출품되곤 합니다. 고급 자재를 쓰고 많은 돈을 들인 주택이 좋은 건축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사실 상이 소기의 목적을 벗어나 이렇게 엉뚱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행사 주체인 건축사협회가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빠져나와서 독단적으로 다른 행사를 한다는 것은 모양이 안좋을뿐더러 외부의 강한 영향력이 문제가 된다면 막아내고, 만일 행사경비가 모자란다면 별 의미없는 수상자 해외 건축탐방 경비 같은 것을 줄여서라도 계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영집 건축사협회로서는 준공부문의 건축상 만큼은 명칭이야 어떻든간에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존속시켜 나가야 하리라 봅니다.

안길원 그 부분에 대해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예전 한국건축전 때부터 오렌기안 건축상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같은 정통성을 어떻게든 이어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건축상제도를 회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건축 3단체가 공조해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출품하지 않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최영집 사실 그것은 협회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홍보할 수 있는 일이 못됩니다.

강석원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작품을 내지말자는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품기한까지 연장된 가운데 50여작품이 응모해 심사까지 마치고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또 심사에 우리 건축계 원로나 젊은 건축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말해 물리적으로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전에 건축사협회에서 해오던 한국건축전이란 행사명을 그대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단체가 이 시점에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서는 문제제기만 해놓고 세부사항은 건축사협회쪽에서 소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영집 네, 그럼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건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존속시켜서 전통을 이어간다는 개념에서, 서울경제신문사와 건설교통부는 공동주최에서 빠지는 방향으로 하되, 부득이 서울경제신문사 등에서 동의하지 않거나 상의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새로운 건축상의 정통성이나 뿌리는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축사협회 만이 아닌 범건축계의 인사들로 가칭 한국건축대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사항들을 추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 또한 계획부문에 관한 것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한다, 상의 권위를 높이고 건축계의 에뉴얼 어워드 성격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으로 오늘 좌담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셨는데 미처 못다하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안길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학생대상 작품전을 열거해 보니까 공식적인 것만 6개 정도 있습니다. 또 각 대학에서 축제형식으로 하는 작품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품을 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수준은 3, 4학년이 주가 되겠죠. 앞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



는데 건축사협회가 하는 계획작품상이나 기성작가들의 준공 건축물작품상에 건축가협회나 건축학회에서도 공동참여함으로써 상의 권위를 더욱 격상시키고 나아가 상을 받았을 때 널리 홍보도 해주고 예우도 해줘서 건축작가는 물론 많은 신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축계 내의 건축상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게 한번쯤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최영집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좌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